

1920~60년대 서울 주거지개발에 따른 주택 외부공간의 의미변화*

이경욱

서울시립대학교 건축학과 박사수로

I. 서론

1920년~60년대 서울은 인구 급증에 따른 주택 부족 문제가 대두되고 있었다. 주택 부족으로 인해 도심 안 고밀도의 주거지가 형성되었고, 도심 외곽에는 신주거지 개발을 촉진시켰다. 그리고 1920년대는 전통주택을 개량하기 위한 건축가의 계획과 논의도 이뤄졌다. 위생에 대한 전통주택의 문제점과 근대생활 및 편의성에 대응하는 개선안 마련을 위한 것이었다. 이와 같이 1920년~60년대 서울에 계획된 주거지는 도시화·근대화에 따른 공급량과 위생, 발전 등의 당시 쟁점이 반영되어서 개발되었다.

주거지 개발과 주택공급에 있어 건축·도시적 관점에서 진행된 선행 연구가 있다. 선행연구는 근대 도시한옥, 문화주택 등 건축유형 및 특성에 관한 연구와 도시조직 분석 등 시대를 대표하는 건축물과 도시 공간에 한하여 집중되었다. 근대 주거지 연구에 있어 주택의 외부공간에 대한 연구가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근대 주거지 개발에 있어 주택의 외부공간에 대한 인식과 건물의 내·외부 관계에 초점을 맞추어 외부 공간의 의미 변화를 고찰하고자 한다.

연구 방법은 1920~60년대 신문기사 및 광고를 활용한다. 주택 광고는 개발자나 수요자의 요구가 반영된 것으로 주택으로서 선호되는 이상적인 모델을 제시한다. 따라서 근대시기 주택의 특징을 대중적인 시각에서 볼 수 있다. 또한 건축물의 서술뿐만 아니라, 외부공간에 대한 표현도 함께 살펴볼 수 있다.

II. 주거지 개발과 주택 개선안

1. 1920~60년대 주거지 개발

1920~60년대 주거지 개발은 도심부와 외곽부에서 모두 나타난다. 도심부는 국가기관 및 왕실관련 인물 소유의 대형필지를 분할하고 도시한옥을 짓는 방식으로 주택 부족을 해결하였다. 익선동, 가회동, 삼청동 등이 1930년대에 지어진 대표적 한옥주거지이다. 도심외곽은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통해 새로운 주거지

가 공급되었고 돈암지구 등을 사례로 볼 수 있다. 돈암지구는 근대 개발회사에 의해 토지가 분양된 후 다시 소규모 개발을 통해 도시한옥이 건설되었다. 도시한옥주거지 외에도 1920년대부터 1930년대까지 문화주택지가 있다. 문화주택이란 전원도시의 이미지를 가진 '이상적인 주택지'로 인식되었다¹⁾.

2. 근대 주거 개선안

주택개량에서 가장 대두되었던 부분은 위생이다. 채광이나 환기를 고려한 실의 배치와 기능위주의 평면 개선안으로 제시되었다. 주택개선을 위한 설계공모는 1920년대부터 60년에 이르기까지 꾸준히 이뤄졌다. 조선가옥에 대한 문제점은 건축가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공유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실내공간뿐만 아니라, 주거지 외부공간에 대한 논의도 함께 이뤄졌다. 박길룡²⁾은 주거에 필요한 요소로 외부공간을 설명하고 있다. 집중된 평면을 제시하고 건축물 주변으로 정원을 계획하였다.³⁾ 이처럼 건축의 계획뿐만 아니라, 이와 연결된 외부공간의 중요성도 주택 개선안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III. 주택 분양광고

1. 도심부 주택 분양 광고

도시한옥은 1920~60년대를 대표하는 보편적 주거양식 중 하나이다. 도심 안 한옥주거지는 민간개발자가 일정규모로 토지를 분할한 뒤 한옥을 건설하여 거주자에게 분양하는 방식으로 조성되었다. 이 과정에서 한옥을 분양하기 위해 신문에 방매가가 실렸다. 도시한옥의 방매가는 위치, 필지와 가옥의 크기, 재료 등이 서술되어 있다. 한옥을 크기로만 설명하는 것은 생활공간 확보가 가장 중시되었기 때문에 한옥의 칸(間)을 통해 주거공간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개발자 입장에서는 더 많은 한옥을 짓기 위해 필지를 더욱 세분화시켰다. 이는 도심 안 근대 분양방식에 따른 주거지 특징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다. 고밀도로 개발된 주거지는 마당의 비율을 줄이고, 채와의 관계를 더욱 기능적 측면

*: 본 연구는 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o. 2019R1A2C1090850)

에서 사고하도록 만들었다.

2. 도심부 외곽 주택지 분양광고

도심 외곽에는 도시한옥주거지와 문화주택지가 대표적으로 개발되었다. 도심외곽 도시한옥주거지는 1930년 후반에서 60년대까지 개발된다. 도심 외곽부 도시한옥의 분양광고는 주택의 크기, 유형과 더불어 입지가 설명된다. '교외지', '녹음' 등 표현을 통해 주거지 환경, 자연환경 속에서 주택이 설명된다. 문화주택 광고에서는 교통, 주거환경, 상하수도 등 건축물의 주거지 측면에서 다루지고 있다. '이상주택지', '모범주택지' 등의 표현을 통해 주거 문화 관점에서 다루진다. 서양 주택에 대한 선망 속에서 나타난 이상 주거를 구현하고자 하였다. 문화주택은 100평 정도 토지에 30평 내외의 주택을 짓는 것이 일반적 상황이었다.⁴⁾ 주택을 제외한 외부공간은 정원으로 꾸며졌다.

IV. 결론

주거지개발은 당시 사회·문화가 영향을 끼쳤다. 도심부 도시한옥은 소형필지에 건설되면서 채와 마당의 구성을 유지하였다. 하지만 협소한 주거공간으로 인해 최소한의 마당이 구획되었으며, 외부공간으로서 활용·인식되지 못하고 주거생활의 확장 공간으로 사용된다. 도심외곽 도시한옥주거지는 교외지의 입지환경이 강조되었다. 이는 마당과 채의 관계에서 채와 일대 도시환경까지 주거 문화공간으로 인식되었다. 더불어 문화 주택은 당시 추구되는 주거 생활에 외부공간의 역할을 기능 이외의 의미까지 확대시켰다.

주거 공간 내부의 기능, 배치에 대해 집중적으로 이뤄진 개선

안은 주택과 연계되는 외부공간에서도 반영됨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상적 주거공간을 계획함에 있어 외부공간이 주택의 가치를 높이는 요소로 사용되었다.

-
- 주 1. 이경아, 전봉희(2009), 「1920~30년대 경성부의 문화주택지개발에 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Vol.22 No.3, 199쪽.
 - 주 2. '住家라하는 것은 一定한 地面에 일정한 건축물이 있고 一定한 空地 即 塋(庭園)이 包含된 것이다. 萬若 一定한 地面에 全部가 建築物이고 조금도 空地가 없다면 이것은 完全한 住家라고 할 수가 없다. 住家建物에 廚房이나 便所가 없다면 이 住家는 不完全한것과 같이 住家에는 塋이 없지 못할 要素이다.' 『朝光』, 朝鮮日報社出版部, 1935. 197쪽 '住宅建築의 畸形的動向'(박길룡).
 - 주 3. 김종식은 각 실의 채광과 통풍을 자유롭게 할 수 있고 남은 공지가 넓지 못하더라도 정원의 효과를 낼수 가 있다. 박길룡, '재래식 주거 개선에 대하여(제1편)', 자비출판, 1933, 1~2쪽, 이경아(2019), 『경성의 주택지』, 집, 87쪽 재인용.
 - 주 4. 이경아, 전봉희(2009), 앞 논문, 196쪽.

참고문헌

- 1. Yim, C. B.(1991) A study on house modernization efforts by Korean architects during 1910~45. Journal of the Architectural Institute of Korea 7(5):135-145.
- 2. Kim, M. J.(2009) A Study on the Aspects of Appropriation of Modern Dwelling through the Mass Media, 1920~1930's, University of Seoul.
- 3. Park, J. H.(2005) A study on modernity in the discourses of housing improvement during the colonial period. Discourse 201 7(2): 82-108.
- 4. Lee, K. A., B. H. Jeon(2006) A study on development of culture village around Keijyo(Seoul) from the 1920s to the 1930s. Journal of the Architectural Institute of Korea 22(3): 191-200.
- 5. Kim, J. Y.(2008) A study of the construction of culture housing and residential plans of Choseon Urban Management Co. Ltd. Residential Environment 6(1): 87-97.
- 6. Song, I. H.(1990) A study on the types of urban traditional housing in Seoul from 1930 to 1960, Seoul National University.